



2024 중산초

무지개반

우리들의 이야기

김민경

김수현

김아은

박하연

안서윤

엄제이

유아림

이하울

정지원

조하은

최연재

최예진

고서빈

김시온

김범준

김태연

박이현

김우리

김원

김태경

오찬솔

박정우

박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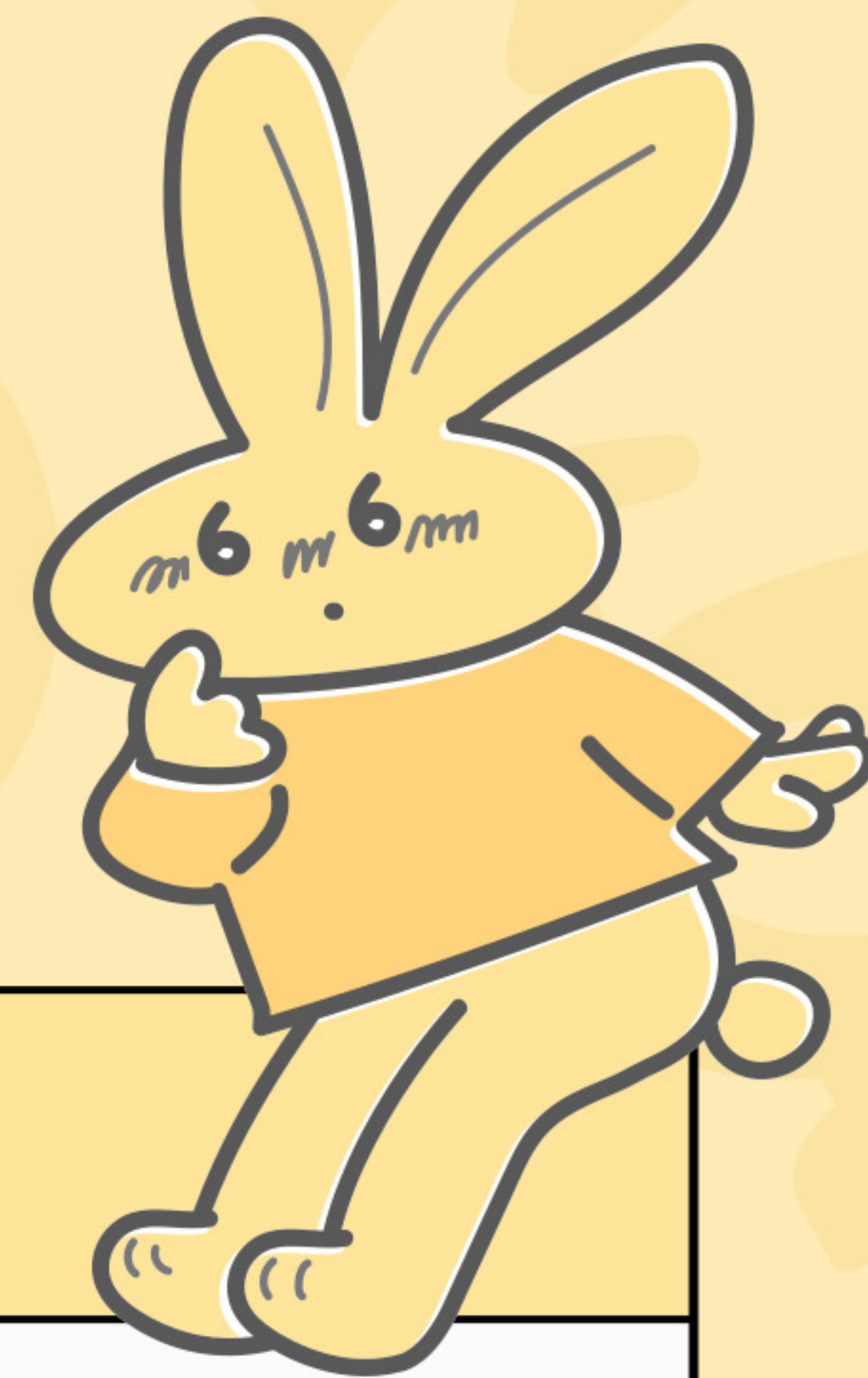
신요엘

이우빈

장재원



목차



번호	이름	동시 제목
1	김민경	어버이날
2	김수현	라면
3	김아은	바다
4	박하연	가을
5	안서윤	고구마
6	엄제이	바다
7	유아림	수영장
8	이하율	바다
9	정지원	눈 내리는 날
10	조하은	가족
11	최연재	단원평가
12	최예진	가족의 품
13	고서빈	대한민국의 사계절
14	김범준	무더위 속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15	김시온	봄이 좋다
16	김우리	분식집
17	김원	과일
18	김태경	과일
19	김태연	떡볶이
21	박이현	맛있는 소리
22	박정우	벚꽃
23	박지안	채소
24	신요엘	알록달록 과일
25	오찬솔	아빠 산타할아버지
26	이우빈	벚꽃 소품
27	장재원	오늘



무지개바

우리들의

이야기

2024 학년 인천중산초
2학년 6반 무지개바 기





어버이날



김민경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만들거다
삭둑삭둑 땀이 뻘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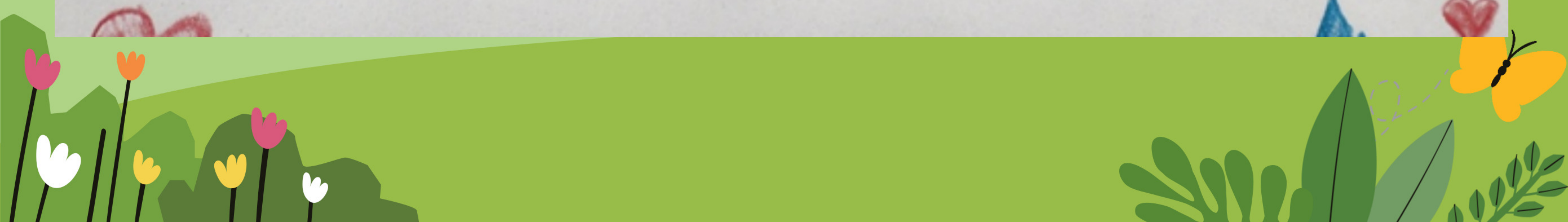
그래도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걸 드리면 고마워 하시겠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걸 보니



내가 더 행복한날 😊



라면

작가: 김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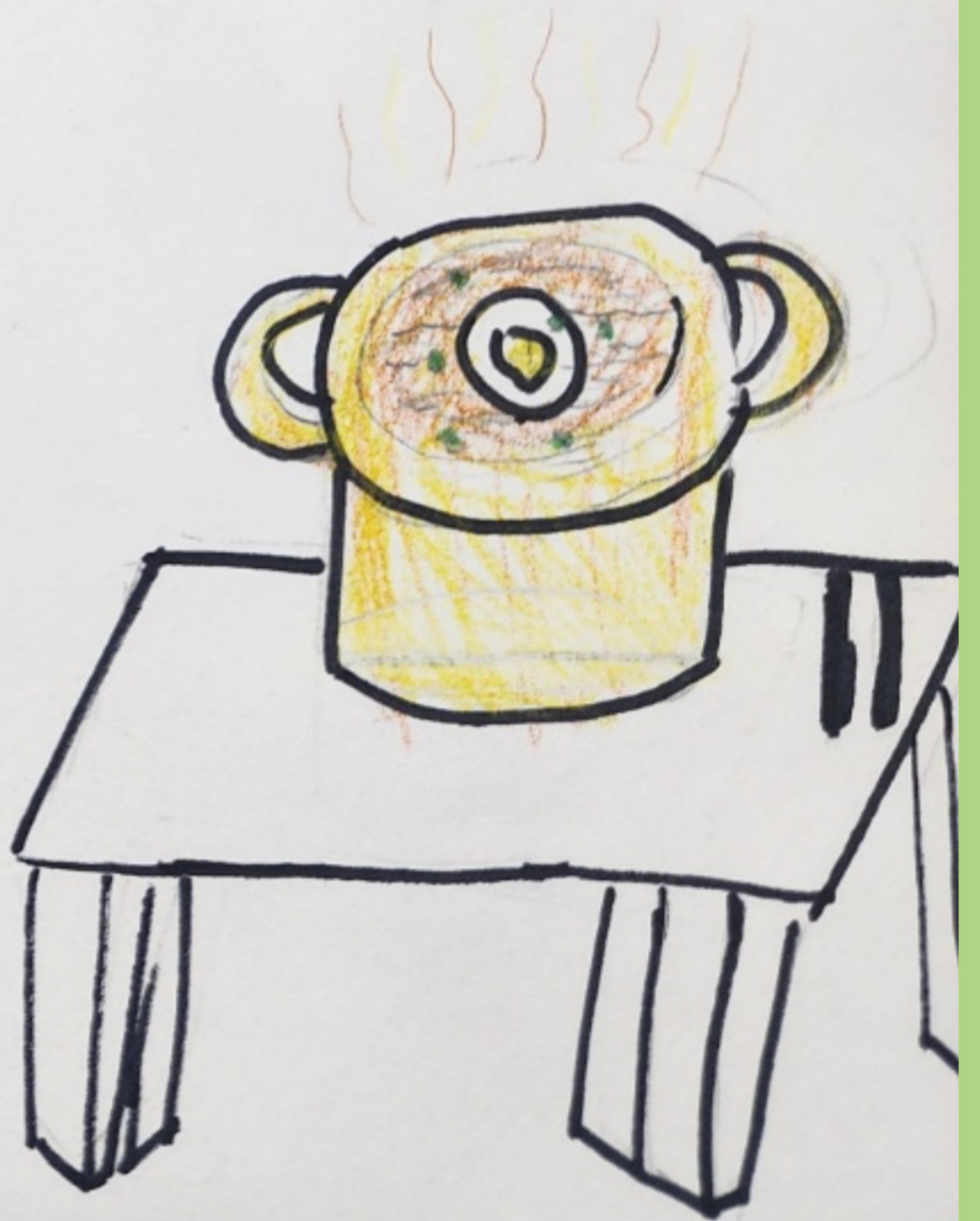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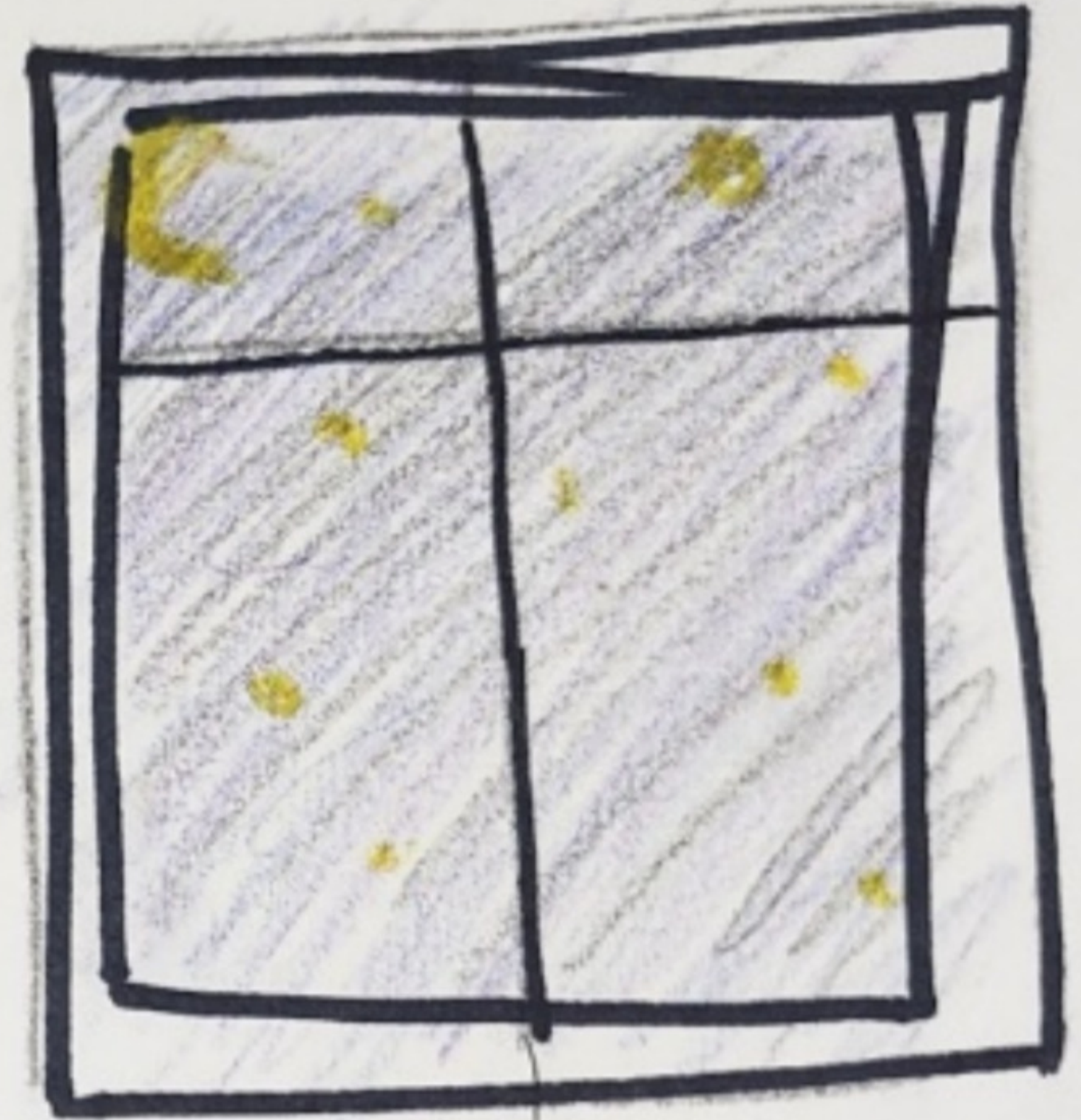
오늘 밤 할아버지와 나의
야식 메뉴는 바로 라면!

보글보글 파글파글 끓고
탁탁 계란도 툭툭

맛있는 라면
완성!

라면을 냄방
쭉쭉

“아이 잘먹었다?”
할아버지께 “잘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한다.



바다

김아은

바다에 가면
두눈감고 파도 툄씩이는
소리 들으면잠이 솔솔 온다.
아름다운 모래성두개
만들면 갈색
모래가 두손에
뒤덥힌다. 바닷물로
손을 깨끗이 씻으면손이
반짝반짝 깨끗깨끗
정말 아름다운 바다



가을

박하연

가을이 왔나봐 단풍잎이 우수수
은행도 우수수 선선한 바람

평화를 느끼는 마음 신선한 차
를 마시며 새들도 짹 짹 짹

가을의 나뭇잎이 불이 되어준다.





고구마



안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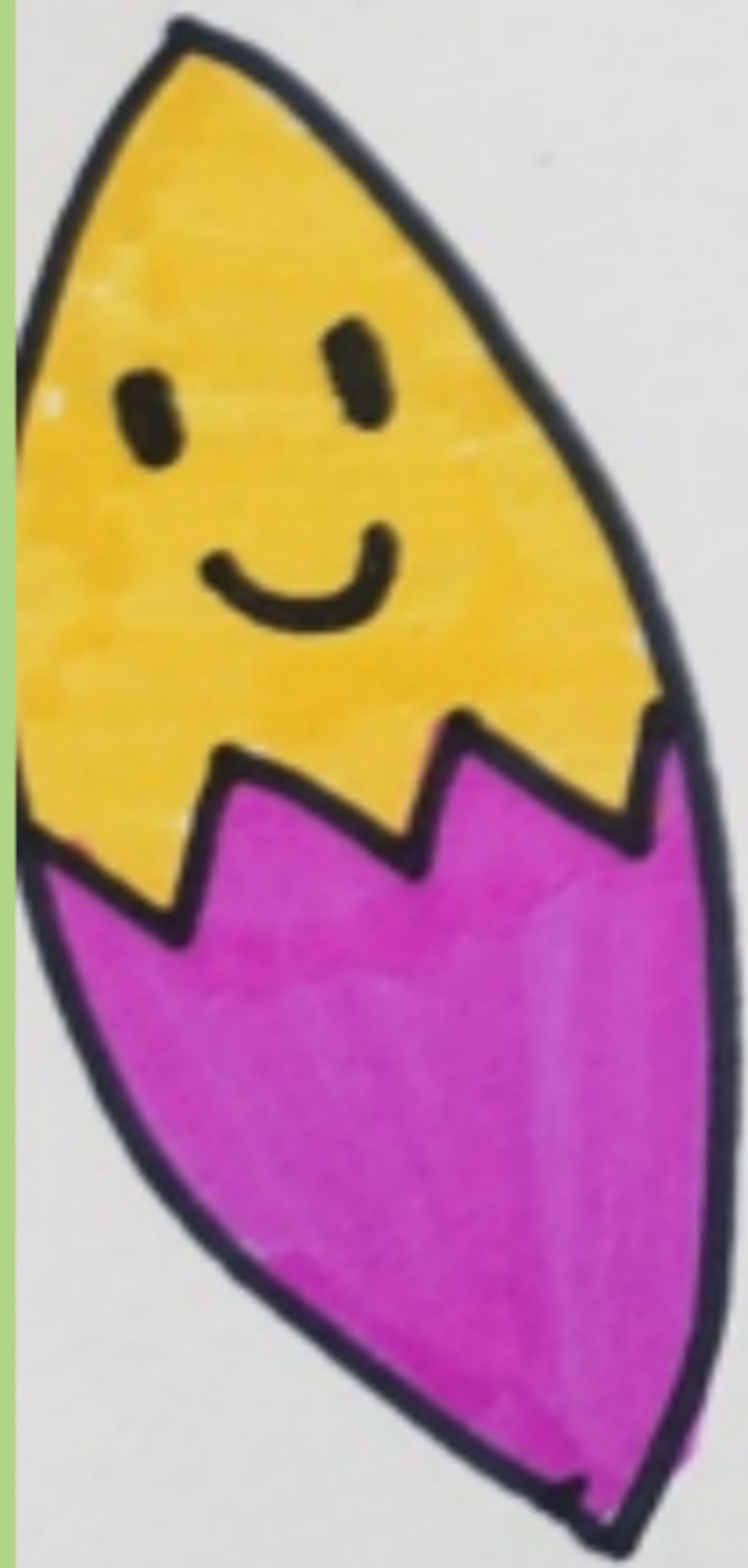
나는 못생긴 고구마다
나는 못생겨서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
예쁜 고구마는 사람들이 엄청 가져가게

난 못생겨서 속상해



그래도 못생겨도 괜찮아 아뿔

난 누구보다 맛있는 고구마야 뽕!



제목: 바다 이별

파란 파란

스르르 스르르

바다야 난 오해 파란색이니

스르르 스르르

파도가 모래를 이불처럼
안아 주나 봐

스르르 모래는 덩 다고 허우적 허우적

넌 신발에 모래가 쑥쑥

근데 신발을 벗었어니

모래가 화르르
내 발이 뜨끈뜨끈

내 발을 계속 밟아도

모래는 내 발에 칼썩칼썩 !!



수영장

수영장

캠핑장 나



나는 수영장으로 후다다닥



수영장은 시원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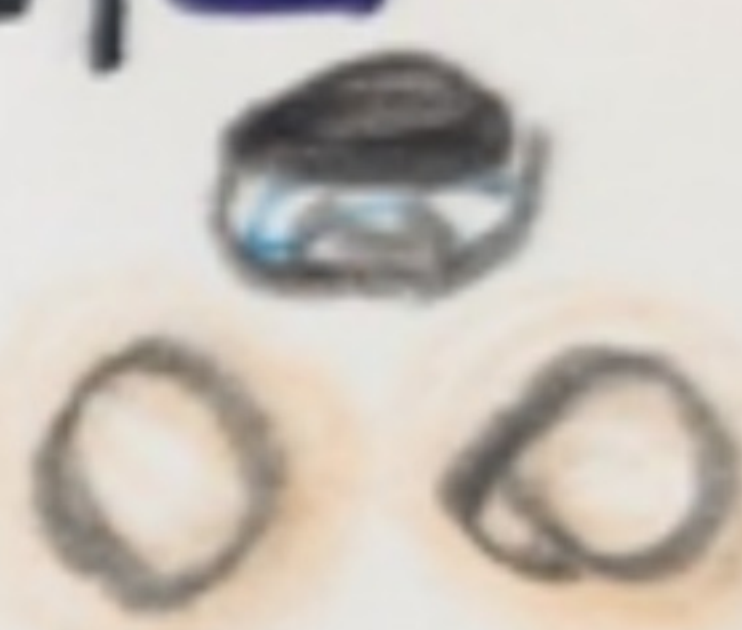


수영장에서 잠수하면

보글보글 거라앉아 잠수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면

이득이득



수영하니 배가 꼬르륵 꼬르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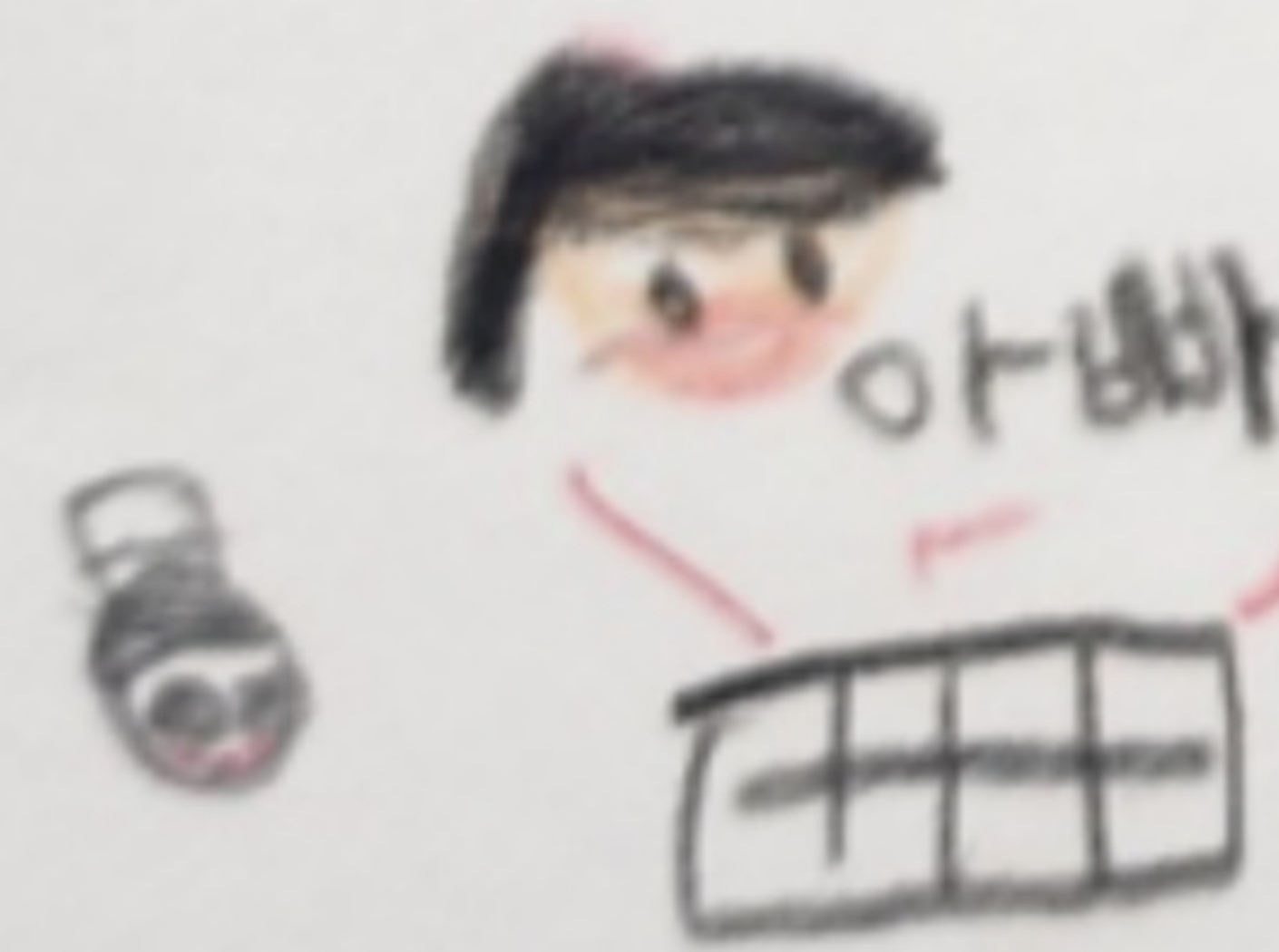
아빠! 방주세요.



불판이 지글지글

그기를 굽는다.

죄고!



01 10 70

타 타
타 타 타

$$\frac{1}{2} + 1 = \frac{3}{2} \quad \text{이}$$

$$-\frac{1}{2} - \frac{1}{2} = -1$$

22H 22H
O O

II 1 2 3 4 5

배가 고프니! 생각할수록
 배는 다 안 아픈데
 뭘 먹어도 제 나 가겠지?
 어쨌든 표은 곧 어이

차 아 $\frac{1}{2}$ 차
 $\frac{1}{2}$ 차 기 기 차 $\frac{1}{2}$ 차
 차 $\frac{1}{2}$ 차

2. 이가 잇는 아이파리 톨 한쌍 갖거 ?
어차면 상아 톨 잇을지 도?

HF 다는
알지마! ㅁ



눈 내리는 날

정지원

눈이 펑펑 내려요

눈을 밟으면

뽕뽕 뽕뽕

너무 추워서

몸이 덜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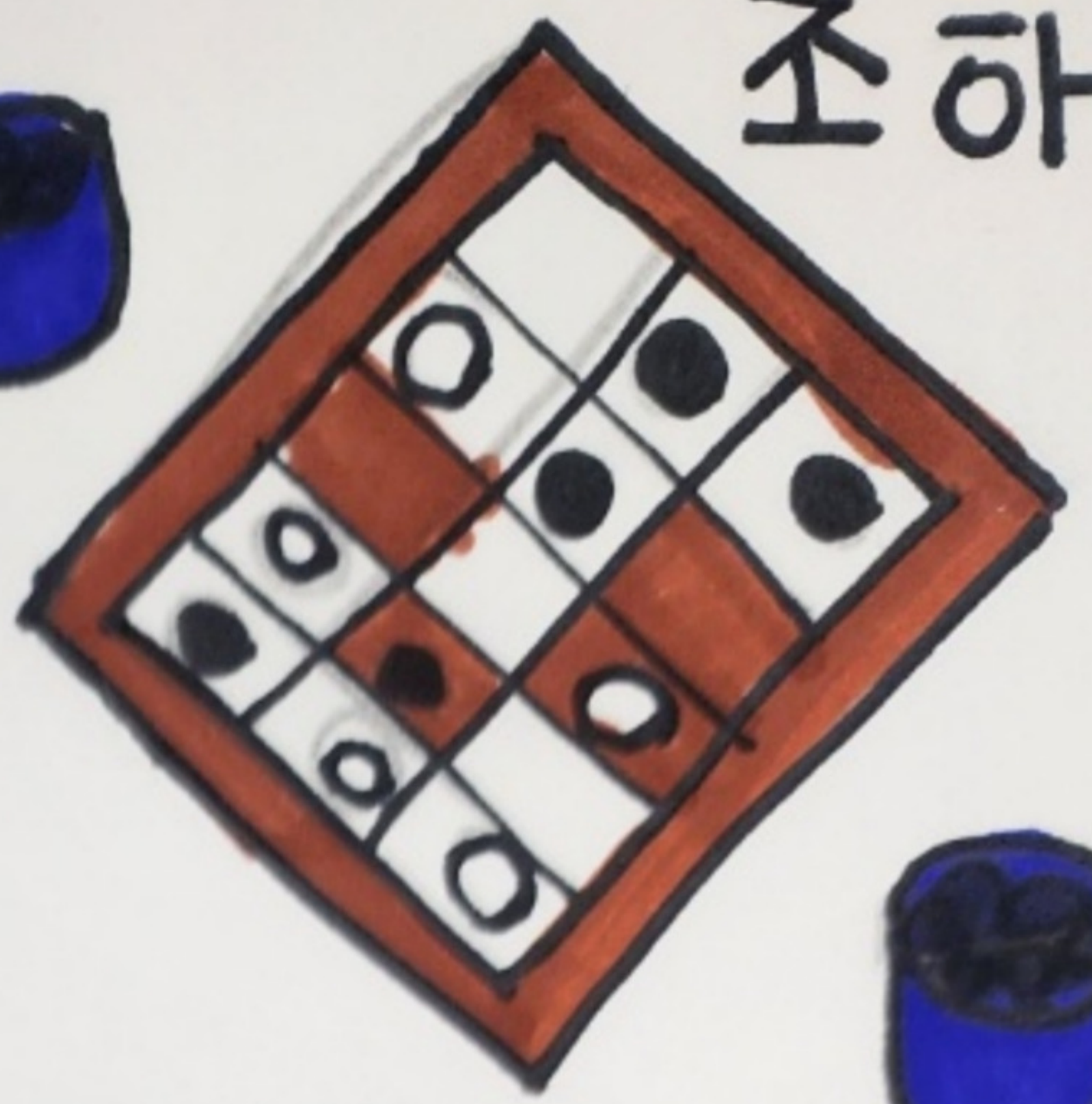
콧물이 주르륵 주르륵

애취!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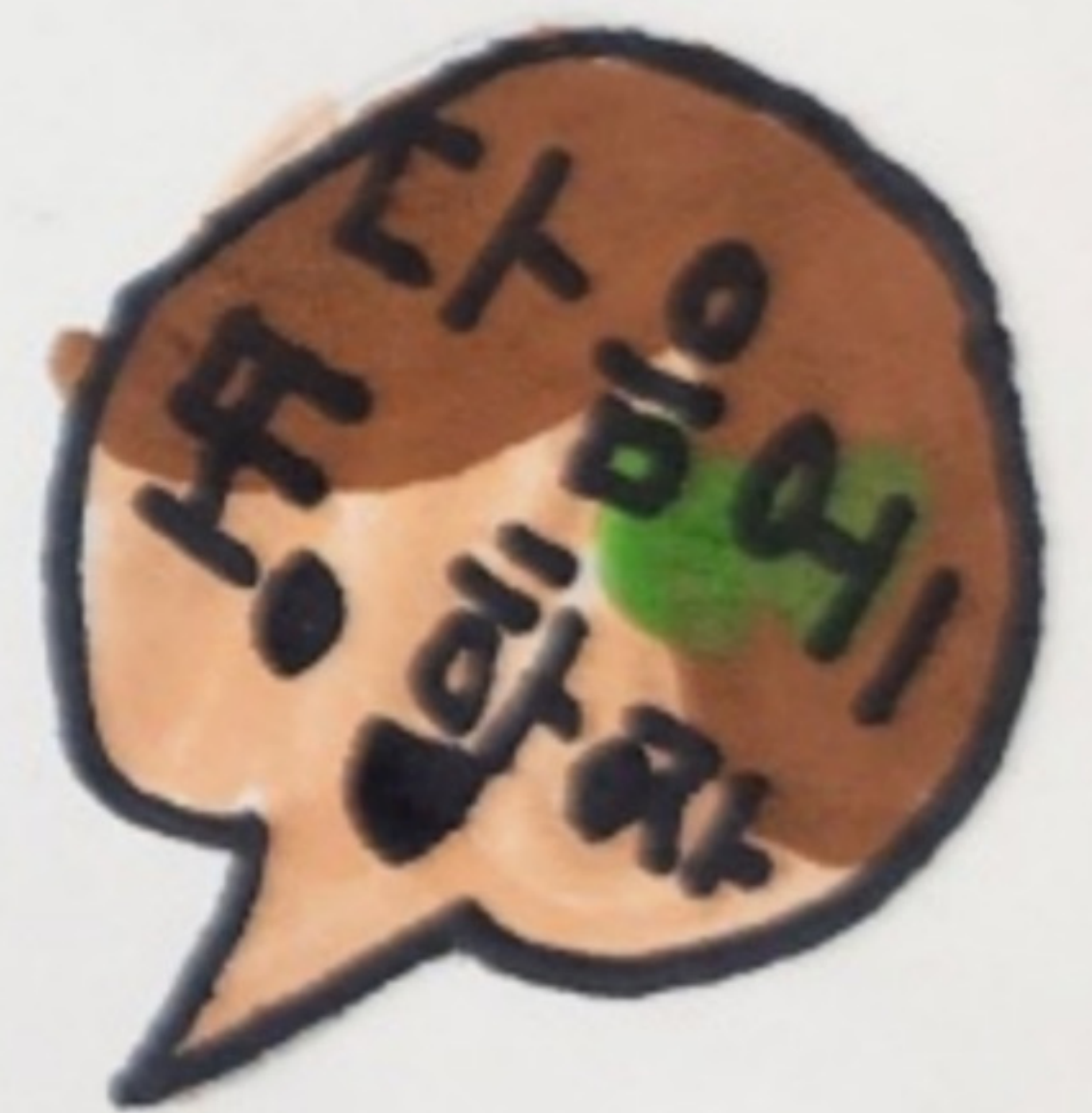
조하은



가족들 모여
애기나눌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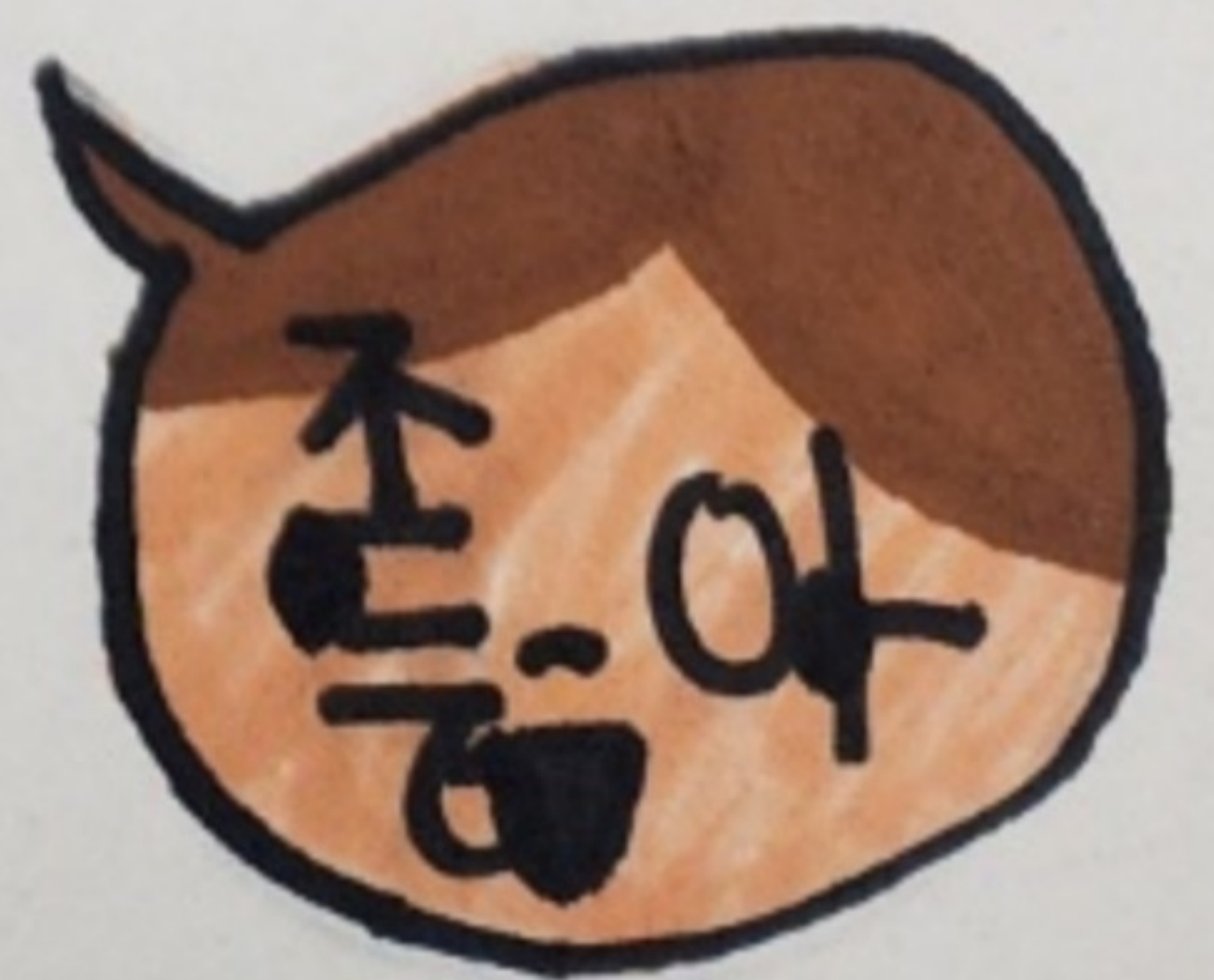


하하호호웃으며
가족과 함께
웃지 가족



과 함께 놀때
끼끼 웃으며

재미있게 놀지
가족과 있으면
재미있어



단원평가

글 최연재
그림 최연재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 주신다

내 마음 두근 두근 쿵다 쿵다
집에서 공부 했는데

받고 나니 100점

점나는 백점을 얻었는데

나는 속상하다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
다음에 더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서 백점을 맞아야지~

제발 다음에는 행운으로 백점을 맞아야지~



가족의 품

최예진

학원 갔다오면

“어서와?”

둘레가 엄마 품에 안기면

포근포근

토근을한 아빠 품도

따뜻따뜻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면

스르르

잠이든다

오빠 품에 안기기도
싫다.

오빠의 품은
차갑고 춥다.

나는
포근하고
따뜻한

엄마 아빠의 품에만
안기고 싶다.



추운 겨울

오빠의 품



대한민국 의 사계절

고서빈

대한민국에는 네가지 춘하추동 사계절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



봄은 푸른빛 새싹을 볼 수 있고,



여름은 시원하게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가을은 알록달록한 단풍잎도 볼 수 있고,



겨울은 멋진 눈사람을 만들 수 있지.

너가 사는 나라는 무슨 계절이 있어?



무더위 속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김병준

아빠와 산책하러 갔다.
햇빛은 쑹쑹

머리에서 땀이 주룩주룩
너무 많다.



시원시원한 물이면 충분한데,
마음씨 좋은 아빠
아이스크림을 사 주신다.

아이스크림이 시원해.
내 머리도 시원시원

고마운 아빠



봄이 좋다.

김시온

아, 따듯한 봄에
벚꽃소풍 가고 싶다.

그 러나 봄은 언제
오는 걸까?

봄은 따듯하고
새싹도 많이 볼 수 있고
예쁜 벚꽃도 많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봄을 좋아한다.

나는 봄이 좋다.



분식집

그날 우리

한 입 먹으면

크아

다아

송골송골

다들 이

바삭바삭, 고소고소

트림

스즈기스즈기스

어머

글러글러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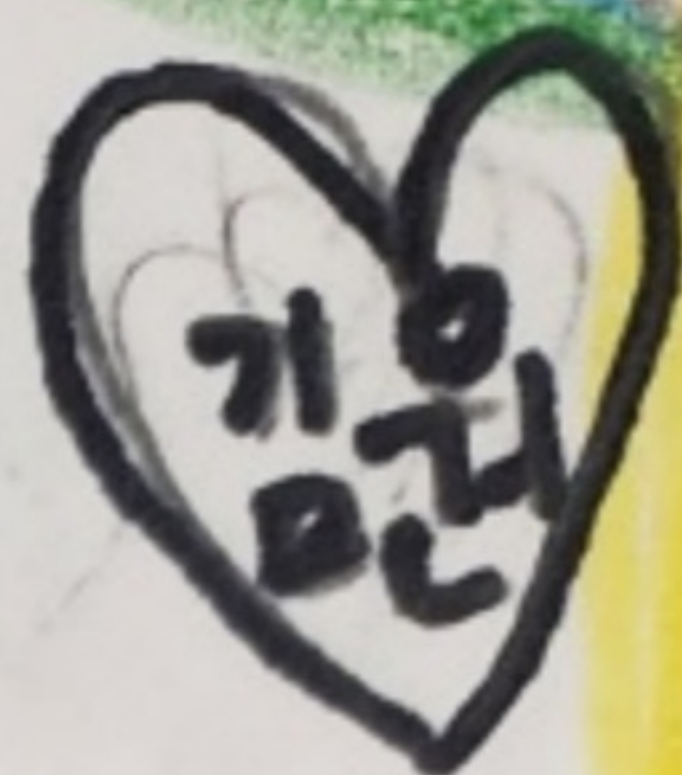
밤밤

다들 이, 트림, 어머
아나마글러글러
야바바



♡ 과일♡

오늘은 어떤 과일을 먹을까?



사과? 체리? 멜론? 딸기?

나는 모두 다 맛있어

오늘은 사과를 아삭아삭

정말 맛있다

멜론은 물렁물렁



딸기는 새콤달콤



과일은 모두 맛있다

냠냠 찹찹 맛있는 과일



과 일

김태경

아삭아삭 수박?

질쫄 질쫄 바나나?

뽕발간 사과?

아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바로

딸기

달콤 달콤 한 딸기

뽕발리 겨울이 되면 좋겠다.

그래야 딸기를 먹지.



딸기



떡볶이

매콤한 떡볶이
너무 맛있어

친구들 꼬 먹고 싶어



김태연



벌써입에서 맵 맵 했단 소리가 나오는 것
맵 맵 단 소리까지 입에서 나오는
맵 맵고 배부른 소리



맛있는 소리

박아현

가조과 식탁에앉아

미의 국을 풀썩풀썩

감지름

썩썩

어묵을

남남

제란말이를

오물오물

꼭꼭 씹어서

꼭구멍으로쫄려

가조과 뽕꺼들은
맛있는소리



버섯

백정무

예쁜 봄
나무에

버섯이
자라

주렁주렁
핀다.



사람들이
버섯을 보며
예쁘다 예쁘다
한다.

부러워
버섯



나도 예쁘다 소리 들으면

조용히

예쁘다





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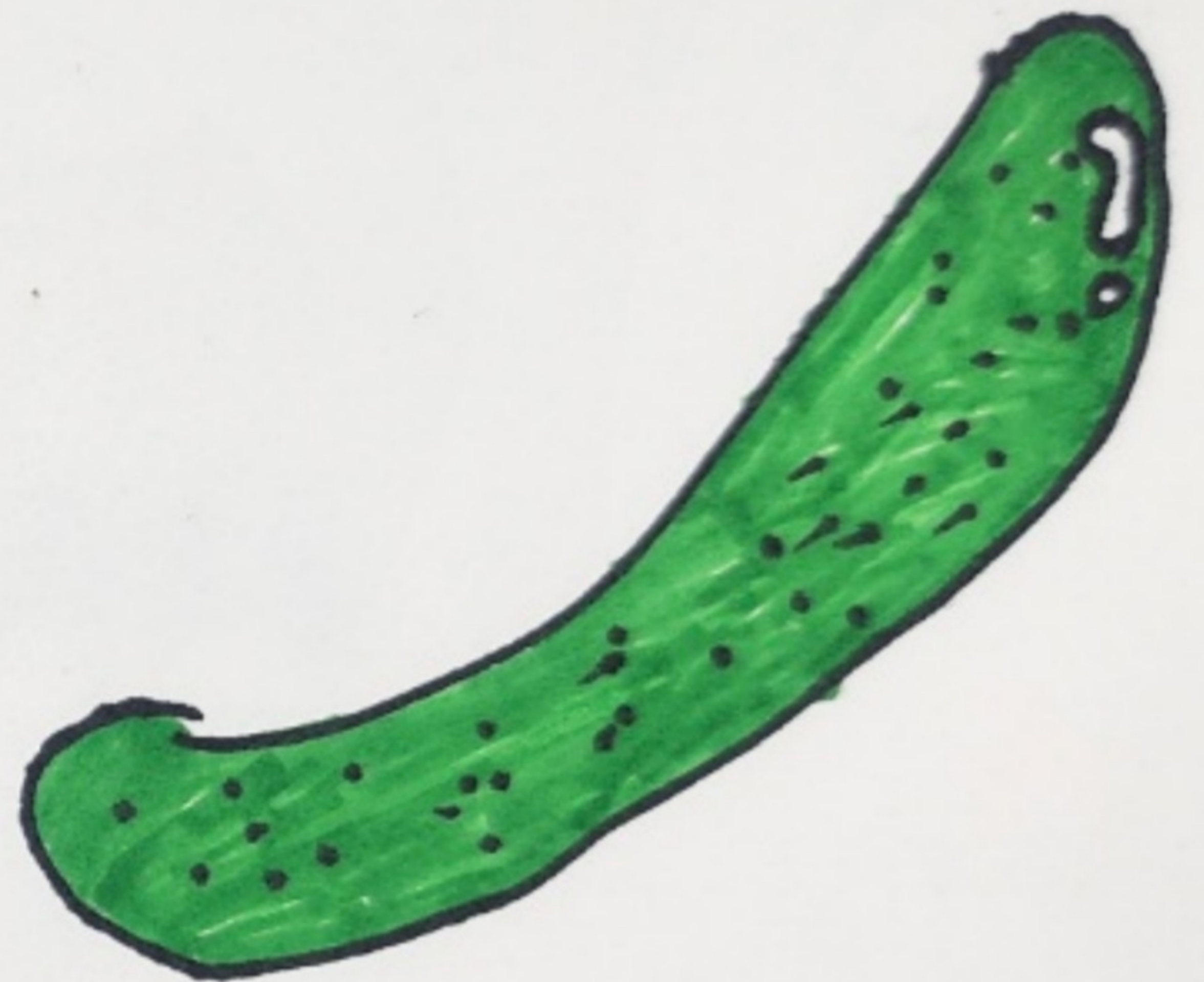
글: 박지안

채소채소 여러가지 채소

주황색 당근
보라색 가지

초록색 오이
빨간색 토마토

연두색 양배추
이 채소들이 들어간거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



맛 좋은 과일

신용



빨간색 사과를 먹으면
맛있고 달콤

주황색 오렌지를
먹으면 상쾌하고

초록색 사과를 먹으면
새콤달콤



파란색 복숭아를
먹으면 달콤하고

보라색 포도를 먹어도
새콤

맛 좋은 과일



(제 목)
아빠 산타 할아버지.

오찬소

 오늘 밤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



물래 산타 할아버지 기다린다.

 아빠가 마트 다녀온다 했다.



덜컹!! 산타 할아버지 등장!!

일어나서 인사하네!

산타 할아버지 가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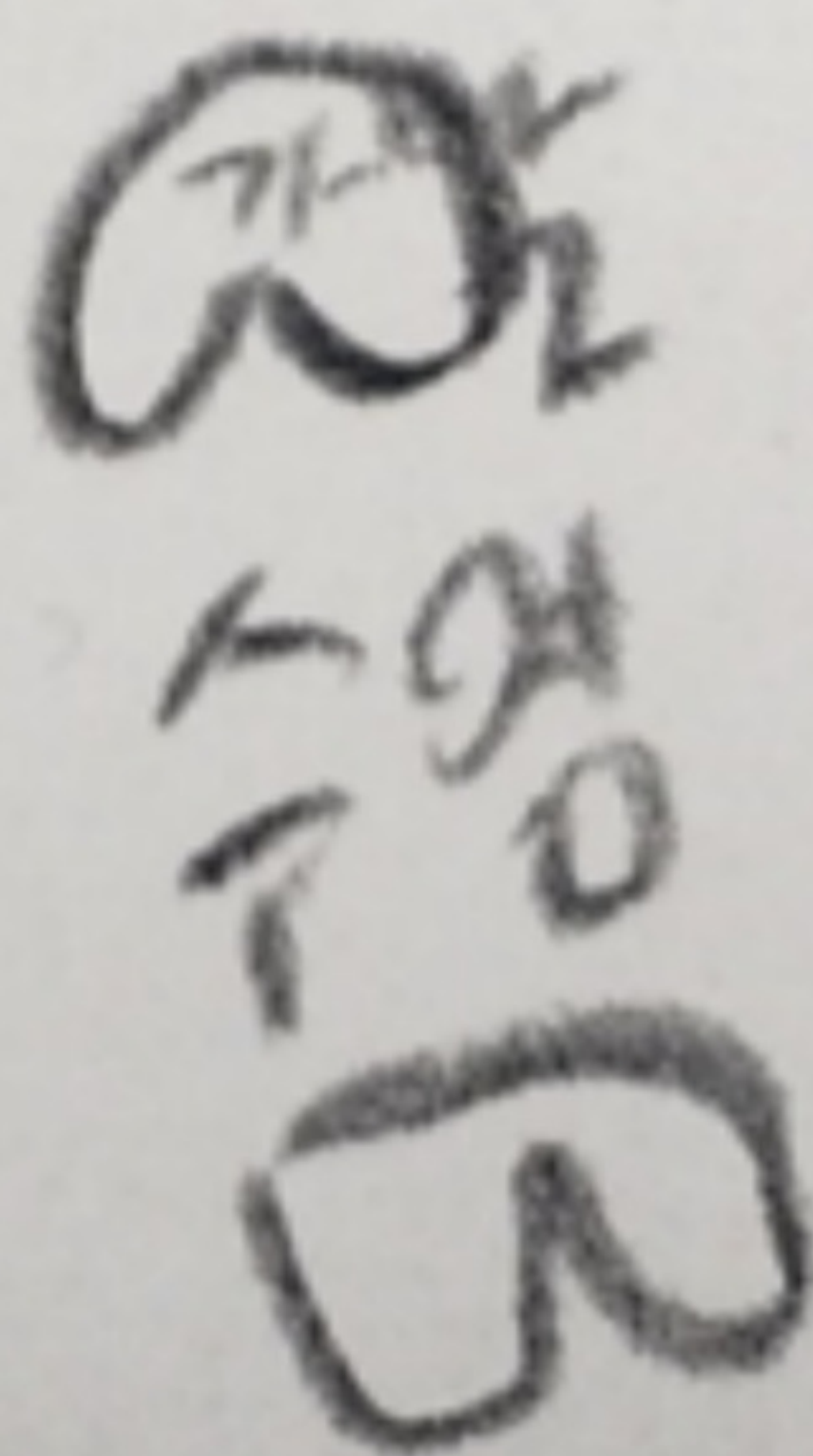
일으켜 세우는데 가방과 수염이 미끄럼

보니까 우리 아빠였다!! 아빠는

엄마한테 혼났다! 선물이 없어 보는데

내가 갖고있는 장난감! 기분이

바글바글 싱글싱글!



바닷소풍
 又 又

이유비



소풍을 가다.
 바닷길로 입고
 하트에 우다 다.



버스에 타고

가는 길에

바닷꽃이 후두둑



꽃바이 바닷꽃 꾸민
 나 나

나 나

□ □

바닷소풍

오늘

장재원

나는 오늘이 좋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나를 깨워 주었고,
저녁 배!

오늘은 좋은일이 많을거야.

비가 안 오잖아

오늘 학교에서
발표에

요기 있게

할수 있을거야

얼굴이 저글웃어 지는
저글웃어 지는

저글웃어 지는

안녕 친구도 만나고

아호! 할머니도 만나고

나는 오늘이 좋아.